

농장 최초 HACCP 인증으로 차별화 선언!



▲ 배성황 대표이사

1965 서울중앙고등학교 졸업
 1971 고려대학교 화공과 졸업
 1972 삼화농원(현 삼화육종) 경영
 1986 대한양계협회 감사
 1993~2005 대한양계협회 이사
 1993~2005 월간양계 편집위원
 현재 농업회사법인(주)삼화육종대표이사
 대한양계협회 이사(2008~)

(주)삼화육종(대표이사 배성황)은 지난 1952년 삼화농원이란 상호로 출발하여 현재 국내 축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선친인 배선목 씨의 대를 이어 1972년 경영권을 이어받은 배성황 대표는 육용종계 시장을 국내 1위로 끌어올렸고, 1982년부터는 양돈업에 뛰어들면서 양계, 양돈 산업에 고품질 종계, 육계 및 종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러국가에 로스 종계를 수출하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지난 7월에는 국내 양계장으로서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양계업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본고는 56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 (주)삼화육종 배성황 대표를 만나 업계의 현안문제 및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국내 최초 HACCP 인증

배성황 대표는 양계산업의 모든 초점을 사양가와 소비자들에게 맞춘 경영을 추구해

왔다. 2007년 국내 최초로 종계장 부회장 단위의 HACCP 국제공인인증기관인 영국의 QAIC로부터 양계장 HACCP 인증을 받았고, 2008년 7월 GPS육성농장인 갈산농장이 (사)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향후 양계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삼화육종이 HACCP 인증을 받은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모든 농장들이 위생과 쾌적한 환경, 철저한 사양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매뉴얼에 맞추어 직원들의 충분한 교육훈련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HACCP 인증을 받은 갈산농장과 장은농장은 외부인 출입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체 농장관리도 완벽한 지침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배성황 사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양계장들이 HACCP 인증을 따르고 실천할 때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했다. 또한 “이번 HACCP 인증 획득을 계기로 타 업체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전체 PS 농장까지 HACCP를 확대할 계획”임을 거듭 천명했다.

육용원종계 쿼터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지난 2004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육용원종계 쿼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다보니 쿼터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였고, 2006년 14만수, 2007년 16만수에 해당하는 GP가 들어오면서 적정수수인 12만수를 넘겨 육계산업 자체를 과잉으로 몰고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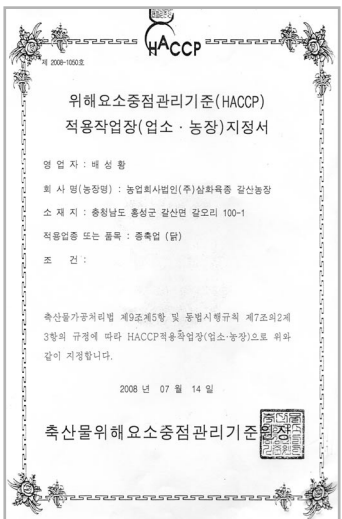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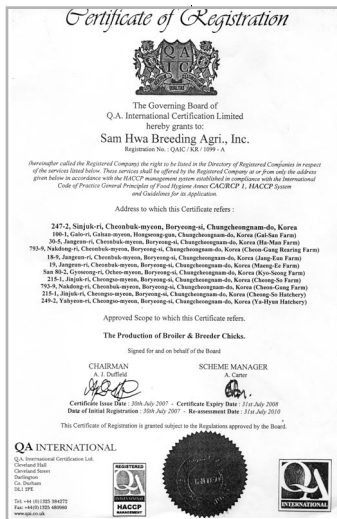
▲ 지난 7월 삼화육종 GPS 갈산농장이 국내 양계장로서는 처음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부터 HACCP인증을 받았다.



▲ 농장로서는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은 갈산농장 전경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삼화육종으로는 어깨가 가장 무거울 수밖에 없다. 삼화육종은 양계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 쿼터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배성황 사장은 최근 원종계 4사간의 실무회의를 통해 12만수로 수입쿼터를 묶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전 업계를 위해서 무분별한 생산을 통한 시장교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사료시대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 뚜렷이 나타나는 이때



▲ 영국의 QAIC로부터 받은 HACCP 인증서(좌) 및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부터 받은 HACCP 인증서(우)

특히, 위생방역대책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AI, ND 등 일반적인 질병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신종질병(CAV, 아테노바이러스 등)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질병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생방역대책위원회를 통한 가교역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홈페이지 개설 및 컨설팅 사업 추진

서로간의 출혈을 막고 산업의 안정을 위한 적정 수수의 종계공급을 위해서는 원종사 모두가 양보하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쿼터제 시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삼화육종의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삼화육종은 쿼터제 합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삼화육종은 최근 사료값 인상 등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대가 변화되는 만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 8월부터는 홈페이지(<http://www.samhwabr.co.kr>)를 개설하고 대 농가를 위한 서비스에 들어갔다.

양계협, 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역할 당부

또한 HACCP최초의 농장 인증을 받으면서 새로운 지평의 장을 열었고 질병 컨트롤을 위한 실험실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컨설팅업체로 지정받아 위생·사양 등 전반에 걸쳐 대농가 컨설팅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대농가 컨설팅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 양계농가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성황 사장은 금년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중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업계의 입장을 정부 등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였다.

현재 양계협회 이사이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배성황 사장은 HACCP 확대, 양계 및 양돈 GGP 프로젝트, 축산분뇨처리 시설 계획 등 급변하는 시대에 양계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양계협회 이사회를 통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양돈협회의 경우 ‘제도개선위원회’가 존재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못지않은 양계현황을 발굴하여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랐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